

지식정보시대의 도서관과 인터넷



강철호*

지식정보시대의 인터넷과 디지털 멀티미디어의 발달은 오늘날 도서관에 다음과 같은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첫째, 도서관에서 책이 사라질 것이다. 둘째, 이용자가 굳이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셋째, 지구촌 어느 곳에 있는 도서관이든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고는 기존의 도서관 여기저기에서 이미 현실화되어 유형도서관의 위기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터넷은 유형도서관의 강력한 적군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과 승산 없는 경쟁을 하지 말고 인터넷을 우리의 아군으로 끌어들이면 좋지 않겠는가? 전자저널, E-Book, CD, DVD 등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도서관에 공급하고 정보의 바다에서 필요한 자료만 수집하여 사이버 참고서가를 마련한다면 훌륭한 디지털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과연 인터넷은 우리 도서관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혹시 인터넷 정보의 바다에서 익사할 우려는 없는 것인가? 우리 도서관은 교실과 마찬가지로 책을 읽어가면서 서로 토의하는 가운데 지적, 정서적, 인격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장소이다. 인터넷의 고립된 방으로 나홀로 들어가서 인간성과 사회성을 상실한 채, 아무런 생각없이 남의 것을 있는 그대로 가져다가 짜깁기 하는 동안, 책을 읽으며 개발되는 창조적인 사고에서 멀어져 가지는 않을까?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공부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없는 도서관들이 여기 저기 생기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의 도서관은 독서실로 전락하고 책 대신 CD 나 디스켓을 구입하여 서고에 진열해 놓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혼자 씨름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 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고 인터넷의 무한한 정보의 보고를 끌어올려 도서관의 고유한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사이버 공간에서 전국의 모든 도서관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최상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우리의 아군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터넷의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파도를 타는 지혜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이다.

아늑한 서고와 부드러운 감촉의 종이는 아날로그 유형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이다.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장,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장, chkang5136@kw.ac.kr

이러한 환경은 이용자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하도록 도움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대형 야외극장과 시원한 활자신문은 안방TV와 인터넷 신문이 따라갈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듯이, 한편의 시를 감상하는 멋은 책속에 펼쳐진 넉넉한 여백에서 나온다. 이러한 특징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실물도서관과 책이 지니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다. 인쇄매체의 내구성은 고서의 가치를 높이고 컴퓨터 모니터에서 책을 읽기에 인간의 눈은 너무나 피곤하다. 인간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정보를 확인하지만 화면상에서 느끼는 답답함 때문에 종이를 프린트하여 읽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책과 마주앉아 종이의 향기와 부드러움을 느끼면서 책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간다.

시원하고 넓은 지면에 컬러로 인쇄된 종이신문의 매력은 결코 종지와 책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도서관에서 책이 사라지고 디지털 무형도서관이 실물도서관을 곧바로 대체할 것처럼 보이지만 프린터는 날로 발달하고 종이의 소모는 더욱 급증하고 있다. 한편, 이용자의 필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서관은 인쇄매체와 함께 다른 전자매체로 구성된 튼튼한 실물장서를 유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도서관(예: 가상 참고서)은 미래도서관이 소장할 수 있는 최대의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실물도서관은 무형의 디지털도서관과 공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전국에 산재한 모든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정보 유통의 주체로서 인터넷을 선용함으로써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인터넷은 더 이상 도서관의 적군이 아니다. 오히려 인터넷과 디지털의 유익을 최대로 활용하면 원격교육센터의 기능과 공동연구센터의 기능까지 수용할 수 있다. 원격교육 및 공동연구를 위한 학술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의 청구역할까지 감당하기 위해선 미래 도서관 사서의 기능과 역할은 너무나 중차대하다. 가상캐릭터가 아닌 실물도우미의 친절과 봉사는 사이버 도서관의 환상에서 깨어나 가까운 동네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으로 이용자의 발길을 다시금 돌이키게 할 것이다. 또한 사서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즉시로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검색자격증을 취득하고 대부분의 인터넷 정보가 영어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영어실력도 더욱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도서관과 학교를 연결하여 지역사회의 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책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보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노래방과 게임방에 빼앗긴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을 다시 찾아 우리 도서관을 애용하고 사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명실공히 지식정보센터의 기능을 회복하고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위상을 향상시켜야 한다. 책을 좋아하고 도서관을 가까이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독서실이 아닌 진정한 도서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사서들과 도서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에 의해 시작된다고 믿는다. 오늘날 도서관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미래형 정보센터로서 그리고 문화예술 도서관으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크게 도약할 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원한 문화유산으로 끝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